

총지신문

총기 52년 (2023년) 새해 종령 법어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당당하고 슬기롭게 살아갑시다



종령 법공 대종사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어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서원합니다.

인간이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사람 인(人), 사이 간(間)’입니다. 즉, 인간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 할 수 있고,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를 형성하고 국

가를 이루며 문화를 창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성장과 과학 기술, 물질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관계의 형성에 있어 날로 개인주의, 이기주의의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도 선언에서 “비구들이 유행하라. 중생의 애민을 위해 중생의 안락을 위해 세간을 사랑하기 위해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애정과 안락을 위해” 전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연기

적 존재이기에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함께할 수 있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야한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화는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래의 종교는 이제 종교 본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야하며, 종교시설은 최대

한 사회복지와 교도들과 일반인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여가생활제공, 그리고 힐링의 장소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대를 함께 헤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당당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갑시다.

성도합시다.

계묘년 새해 아침
불교총지중 종령 법공 합장

계묘년 통리원장 신년사

비로자나부처님 자비광명 가득하길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승단의 모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들께 대일여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질병과 사고로 인한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의 정토가 되기를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종단은 창종 반세기를 넘어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창종 50주년을 맞아 종조 원정 대성사님의 창종 정신과 역대 스승님들의 교화 원력과 헌신, 그리고 스승과 교도가 함께 손잡고 걸었던 숭고했던 역사를 갈무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도들이 앞서 설판재자로 동참하여 종단 50년사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였습니다. 대면 법회가 시작되면서 호국안민법회를 3년 만에 봉행했으며, 각 사원마다 교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용맹정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 지치며 힘들었던 인내의 시간을 함께 뛰어넘어 서로 보듬고 안아주며 종단과 교화발전에 모두 한마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종단은 종령 예하께서 회사하신 부지를 기반으로 노인요양병원 설립의 청사진을 마련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경로법회 등을 통해 사부대중의 신심에 보은하고, 종조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실천하는 한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는 제암변명(除暗遍明)입니다. 부처님의 광명은 모든 곳에 가득 차있기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빛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종단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빛을 밝혀 어둠을 물리치고,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이 충만한 나



통리원장 우인 정사

날이 되도록 앞서 나갑시다.

새해불공도 원만회향 하시기를 발원하며, 올해도 변함없이 제불보살의 가지력이 두루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성도합시다.



새해 축화=덕광 정사

종/조/법/어

진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다.

지 면 안 내

2면 교계 신년법어
9면 신년 기획/미리보는 2023년

5면 종단 신년사
10면 불교로 여는 삶

총기 52년 신년하례 법회 및 기로스승 진원식 봉행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 짜 _ 총기 52년 1월 12일(목) 오후 1시
장 소 _ 본산 총지사 서원당
참석 대상 _ 스승 및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

인내하고 용서하는 화해 덕성 길러야

신령스러운 광채가 새 아침을 장엄하니
집집마다 無盡福樂(무진복락)을 이루는 門(문)이
열리고 / 하늘이 天機(천기)를 움직여 한없는 공덕을
쏟아내니 / 萬物(만물)은 利澤(이택)을 입고 환희의
눈을 뜹니다.
곳곳에서 장악을 무너뜨리는 法雷(법뢰)가 일고 大
施門(대시문)이 열리니 / 十方(십방)에 가득한 障礙
(장애)가 구름처럼 사라지고 / 頭頭物物(두두물물)이
제 몸을 풀어 本分消息(본분소식)을 전하니 / 걸음마
다 普門(보문)이요 이르는 곳마다 圓通(원통)입니다.

생각생각은 깨달음으로 이어져 부처를 빚어내고 /
一草一木(일초일목)은 엄매이는 틀을 벗고 法身(법
신)의 面目(면목)을 드러냅니다.
눈앞에 삶의 매듭을 풀어내는 깨달음이 있고 / 눈빛
이 닿는 곳에 엄매임에서 벗어나는 出身活路(출신활

로)가 있습니다.
일체제불이 이 마음을 벗어나지 않았으니 밖에서
찾지 말고 / 面前(면전)에 출입하고 있는 無位真人(무
위진인)을 깨달아야 합니다.
햇살도 가슴에 담아두면 圓光(원광)의 빛이 되는 새
해 아침에 / 묵은 것을 버리고 빛이 소생하는 마음발
을 경작해야 합니다.
다투며 갈라지고 증오와 분노로 마음발이 거칠어졌
으니 / 忍耐(인내)와 용서하는 和解(화해)의 德性(덕
성)을 길러 인간의 뜰을 소생시켜야 합니다.

萬法(만법)을 빚어내는 마음을 통해 푸른 願(원)을
세운 이는 / 구하고 찾는 것이 새로운 宇宙(우주)를 세
울 것이요 / 일체를 담아내는 包容(포용)의 큰 그릇을
이룬 이는 / 萬德(만덕)의 기틀을 얻어 이웃을 넉넉하
게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진각종 종인 정정 정사

지금 참회와 용서가 해답입니다

우주 운행의 큰 기운을 품고서
또 다시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에 감도는 서기(瑞氣)를 입어
나날이 생기 넘치는 한 해를 서원합니다.

사바세계 곳곳에서 네 탓으로 다투면서
아픔과 굶주림이 시름시름 깊어갈 때
내가 먼저 참회하고 서로서로 용서하면
안락정토 여기라고 진각종문 설합니다.

중생이 더 잡아서 살고 있는 여기저기
갈등을 넘어 미움의 불길이 치솟아도
참회와 용서의 묘약을 정성들여 받들면
환한 웃음 마주하는 눈길이 기다립니다.

연꽃이 진토에서 고운 모습 피우듯이
의왕은 잡초 약초 분별하지 아니하고
갑남을녀 저마다 본래 빛깔 드러내면
치유의 손길 주고받는 은혜 세상 열립니다.

종교가 근본이 되어 진실로 참회하면
쟁론의 정치도 남 탓의 세파(世波)까지
인과를 밝게 찾아 시비를 함께 가리고
책임지고 용서하는 사회가 자리합니다.

올해도 내년에 살아남은 사람이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간 작년이 되도록
그렇게 뜻 모아서 살맛이 벅찬 나날을
나누어 봅시다.



대한불교천태종 종정 도옹 스님

밝고 청정한 신심으로

자취 없는 보살도를 완성하십시오.
스스로 짓는 미혹한 생각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니
마음 하나 쉬고 나면 온 법계가 고요해집니다.
지혜와 복덕이 수승하기를 힘쓰며
욕망에서 벗어나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중한 인연으로 바른 법을 만난 우리가
함께 가야할 길입니다.
원용의 도리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인류의 평화와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기를
지극히 기도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새해에도 초발심으로 발원하세

이며, 미래심입니다. 제법의 실상으로 말하면, 그 마음
은 실로 과거라 할 수도 없고, 현재라 할 수도 없고, 미
래라 할 수도 없는 그저 최초의 본마음(初發心)입니다.
최초의 본마음은 중생 저마다의 자기초심(自己初心)
이기도 합니다. 애초 우리들 마음이었지만, 험한 세월
살다보니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하늘의 둥근달[月]이
언제 사라진 적이 있고 일그러진 적이 있었을까요? 자
기 초심 속에 본래 갖추어진 그 달을 환히 밝혀, 인연 따
라 중생구제 발원합니다.

시방세계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十方所有諸衆生)
근심 걱정 여의어서 항상 즐겁고(遠離憂患常安樂)
깊고 깊은 바른 법의 이익을 얻어(獲得甚深正法利)
온갖 번뇌 없어지기 바라옵나이다(滅除煩惱盡無餘)

부처님께서 하신 사업을 한자로 불사(佛事)라 합니
다. 일생일대의 사업이라는 뜻으로 일대사(一大事)라고
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
은 고승들께서 “욕령중생(欲令衆生), 불지지견(佛之知
見), 개시오입(開示悟入), 출현어세 (出現於世)”라고
요약하셨습니다. 이런 부처님의 불사 소식을 밝힌 대
표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구제
입니다.
중생구제는 모든 불보살님들의 과거심이며, 현재심

내마음의 등불

건화사 도관 정사

말보다 뜻을 배우라

비록 좋은 말이나 교묘한 말은 할 줄 몰라도 다만 진실한 뜻이 있으면 그 법을 마땅히 받아가져야 하니, 금을 취
하고 돌을 버리는 것과 같다. 미묘한 뜻은 순금과 같고, 교묘한 말은 돌과 같은 것이니, 명자(名字)에만 의존하
고 뜻에는 의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밝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다.

〈불교총전 287P 『구경일승보성론, 究竟一乘實性論』〉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식으로 소개합니다. 건화사 도관 정사님은 선림사 수현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창종 50주년을 맞은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

밀교경전의 번역과 편찬, 그리고 밀교의식의 복원에 힘을 기울여
현대 한국 밀교의 수행체계를 확립한 원정 대성사!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밀교에서 중생구제의 답을 찾은 원정 대성사의 일생, 정신과 체험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생활 속에서 수행하고, 수행이 생활이 되는 길’을 밝힌
‘생활불교, 재가불교’ 종단 불교총지종!



불공
잘
해
라

김천 지음/불교총지종 엮음/국판/양장/284쪽/값 15,000원

총기 51년 창교절 기념 법회 전국서 봉행

“창종 정신 이어 종단 발전에 동참하자”



총기 51년 창교절을 맞아 기념법회가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사진=본산 총지사 박재원 기자

총기 51년 12월 24일 창교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법회가 전국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되었다.

종령 법공 예하는 승단과 교도들의 가정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하고, 종조님의 창종 정신을 잇고 한마음으로 종단발전에 동참하자고 법어를 내렸다.

유시문에서 종령 법공 예하는 “창종 50주년을 맞이하는 창교절을 즈음하여 종조님의 창종정신을 이어가고 종단발전의 씨앗을 뿌리고 주춧돌 하나를 놓는다는 심정으로 포항지역에 종단 자체 노인요양시설 불사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첫걸음은 종단발전과 교화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과 서원을 당부했다.

한·중불교 우호교류 화상회의 개최

통리원장 우인 정사, 남방불교권 국가 지원 제안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불교지도자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양국간의 교류증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삼정각 천추당과 중국 북경 광제사에서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중불교우호교류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삼귀의와 반야심경을 시작으로 양국 대표단 소개, 연설 등

으로 진행됐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교류를 재개하고 양국불교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 부회장 명생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사무총장, 중국불교협회 회장단과 부회장단 각 9명씩 참가해 우호를 다졌다.

대표 연설자로 나선 통리원장 우인 정사

는 남방불교권 국가에 대한 양국 불교계의 지원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우인 정사는 “양국이 쌓아 온 우호와 교류의 기반 위에 불교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의 정신을 아시아 곳곳에 실천하는 구심체가 되어 세계화에 한발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불교권 국가이면서도 교육적, 문화적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남방불교권 국가에도 눈을 돌려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자.”고 밝혔다.

중국불교협회 회장 연각스님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것처럼 중한불교 ‘황금유대’ 우호관계도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면서 “이전 세대 불교지도자의 자비심과 큰 원을 계승해 중한 양국 국민의 화목을 유지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부단히 새로운 공헌을 하자.”고 화답했다.

한중 양국 불교계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오는 10월 예정된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 일정 등을 한중일 삼국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지혜의 눈

현대 철학의 내용은 현대 물리학의 기반에 형성
리좀(rhizome), 화염의 인드라망 우주관과 비슷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이 현대 사상, 특히 난해하기로 이름난 프랑스 사상을 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빨리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대 사상은 불교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불변의 최소단위를 추구했다면, 그 대표적인 형태가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그리는 원은 원이라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데아만이 영원하고 불변한다는 관점이지요. 중세는 그 이데아의 자리에 신을 놓았다면 근대로 이행하면서 인간의 ‘자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불변적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불변적인 것으로서 이데아와 신, 자아가 비판하면서 현대 사상은 대신 과정, 유동(流動), 생성(生成)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철학 용어로 처음 사용한 아장스망(Agencement)은 배치로 번역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와 생성이라는 의미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는 신에 의해 일회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생성은 이 세상에서 무수히 많은 것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의 사물이 끊임없는 조합에 의해서 이 세계가 형성되는데 조합이란 사물의 배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배치를 통해 끊임없이 생성되는 세계는 불교 용어로는 무상(無常)이고 연기(緣起)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낯선 배치를 통한 생성은 깨달음과 비슷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나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란 화두가 말하는 의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배치’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 배치의 방법을 습득하는데 그것이 세계관이고 가치관입니다. 익숙한 것, 또는 무의식에 저장된 배치에 만족하

면 새로운 국면을 만날 수 없습니다.

프랑스 현대 철학은 물리학의 연구과에 기대고 있습니다. 입자와 파동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빛의 이중성에 직면한 물리학자들은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관찰하면 파동처럼 움직이던 빛이 입자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던 객관적 실재라는 주장이 한편에서 무너지고 주관의 그 틈을 메꾸게 됩니다.

한편으로 들뢰즈는 리좀(rhizome)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리좀은 원래 생물학에서 대나무처럼 수평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줄기를 지칭하는 말인데,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사용하면서 철학적 사유어로 통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계나 이원론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퍼져 나가면서 새로운 지식을 탄생시키는 사고방식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위계나 이원론은 세계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바라보는 근대까지의 인식틀입니다. 중심은 주변보다 발전되고 성숙한 곳이고 따라서 중심은 주변을 개화, 근대화, 교화시키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세계를 是와 非로 선과 악으로 나누고 중심이 주변을 개조, 문명화시키는 과정에서의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중심이 서구이고 주변이 비서구 지역입니다. 리좀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중심이 없는 또는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관점이 대두됩니다. 화염의 인드라망과 비슷한 우주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대 철학의 내용은 현대 물리학의 기반위에 서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습득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행히 불교의 교리와 닮아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비불교인들보다 용이합니다. 한편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위상이 의도하지 않은 외부 학문의 도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교인들의 공업(共業)이 산처럼 무겁습니다.

칼럼리스트 김태원

총기 52년 계묘년 새해불공

하루 동안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칠일 동안 행복함은 자성불공 함에 있고
한달 동안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년 동안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 동안 행복함 불퇴전에 있느니라.

<종조법설집>

일 시 _ 총기 52년 1월 2일(월) ~ 1월 8일(일)
장 소 _ 불교총지종 전국 사원 서원당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이 흘러 넘칩니다. 되돌아보니 길게 뻗은 만리장성도 관광객의 발 아래 있고 전장을 힘차게 누비던 말과 코끼리는 동물원 담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작두 위에서 누리는 잠간의 신묘한 재주를 멈추고 창과 칼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드는 일을 위해 솜씨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도리를 공유하는 계묘년(癸卯年) 아침입니다. 자비와 상생(相生)을 향한 걸음걸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광명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은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는 고통분담에 기여하

진심과 공심으로 소통하는 새해 되길

동참하는 바탕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및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수지혜를 모아야 할 시절이기도 합니다.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존적 삶의 길을 찾으면서 일상생활 속에는 항상 방아를 찧는 두 토끼처럼 합심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진심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공심으로 사부대중과 소통하겠습니다. 개인개인의 팔만사천 번뇌로 인하여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누구나 선명상(禪冥想)을 통해 평상심을 되찾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대의指南(指南)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열기 위하여 경주 남산 열암곡 마에임불상을 제

자리에 세우기 위한 국민운동도 함께 전개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어제에서 오늘로 흘러 오고 오늘에서 내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시간이란 현재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며 또 과거는 미래와 서로 상통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옛 선지식께서는‘금기불여석(今既不如昔)이면 후당불여금(後當不如今)이라’했습니다. 따라서 새해가 작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도 올해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계묘년에는 화합과 상생의 복을 두드려 진리의 법우(法雨)로써 만물이 모두 새로워지고 하나하나가 순리대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지혜 밝히고 자비 나누시다

(心印)으로 연결되고 통하면 인류와 사회의 질서(秩序)는 바로 서고 조화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국내외 정치와 경제적 안정,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도 절실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를 밝히면서 자비를 나누고 복덕을 지으면서 희망을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서원(誓願)세워 실천하고 정진합니다. 회향(廻向)하며 나누어서 함께합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계묘년 새해입니다. 새해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열반 60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무진서원으로 심인진리가 이 땅에 널리 퍼져 밀엄정도가 구현되도록 다시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면 소원하는 바가 성취됩니다. 서로를 칭찬합니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함께해서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60주기를 뜻깊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새해 새날을 맞아 우리 모두 지혜(智慧)를 밝히면서 자비(慈悲)를 나누시다. 복덕(福德)을 지으면서 희망(希望)을 나누시다.

지혜를 밝히면서 자비를 나누고 복덕을 지으면서 희망을 나누면 이것이 곧 인(因)이 되고 새로운 연(緣)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활의 변화는 곧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믿음을 가집니다. 서원(誓願)을 세웁시다. 실천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면 소원하는 바가 성취됩니다. 서로를 칭찬합니다.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함께해서 좋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심인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고 글로벌 경제난과 긴박한 국제정세도 원만해지도록 온 국민과 세계인이 자타불이의 마음으로 화합하고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과 행복을 바라는 곳에 여래의 지혜가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는 곳에 관음의 자비가 있습니다. 생각의 바탕이 청정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 고난에서 행복을 건질 수 있으니

자타불이 마음으로 화합·협력합시다

모든 사람이 희망과 행복의 주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립하고, 집단과 집단이 마주 서고, 나라와 나라가 충돌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일체의 생명이 존중되고 상생하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하고 나부터 새로워야 합니다. 자신의 변혁이 세상의 변혁임을 믿고 행하는 곳에 대승의 보살도가 성취되어 정토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불자의 사명은 청정 자성을 깨우하

고 전법도생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정진하며 좋은 생각과 좋은 일로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불자가 앞장서고, 미래 세상을 위한 차세대 포교에도 더욱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새해, 계묘년은 모든 사람이 불성을 밝혀 복덕을 구축하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가 삼독을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발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卯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삶’보다 더 위대하고 존엄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삶’이기에 우리는 또한 그 ‘삶’을 함부로 소비하며 내키는 대로 살 순 없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으로 오신 것도 ‘삶’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에게 기꺼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행복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

상생의 마음으로 공부하고 행하길

황과 고난 속에서도 ‘행복에의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고 네가 나를 위할 때,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남도 이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검은 토끼해라고 합니다. 토끼는 영민함을 상징하고, 검은색 역시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것처럼 올해는 지혜의 광명이 충만한 해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생(相生)의 마음으로 부처님 공부 열심히 하고, 그것을 행(行)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과 불자 가족 모두가 더 힘찬 희망으로 더욱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발원합니다. 더불어 올 한해도 제불보살님의 지혜와 가지(加持)로 본래면목((本來面目)을 보며 무탈한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

불법 의지해 생활하길

고, 또 욕심을 뱉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하여 대 자유인이 되시길 권면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믿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번뇌도 능히 물리쳐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정쟁은 멈추지 않아 서민들의 삶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을 멈추고 나 자신을 믿고, 더 나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하여 생활한다면, 찰나의 번뇌에서 벗어나고, 심적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700킬로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지구라는 행성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몸을 완전히 맡겨 놓았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에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루에도 8만 번뇌로 갈등하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중앙총의회 의장 법상인 전수

참회와 실천하는 한해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로 여러 가지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합니다만 막상 연말이 되면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며 허탈해지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서원에 대한 물려서지 않는 부단한 정진과 노력이 부족했

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한해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작년 한해를 정리하고 반성하며,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나 고통을 준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참회 할 수 있어야 하며, 작아도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한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원력으로 불자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변함없이 건강하시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록경 정사

소소한 선행을 평소 생활습관으로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만물의 성장과 번창, 헌신과 희생을 상징하는 토끼의 해, 계묘년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두 손 모아 서원합니다.

늘 맞이하는 그날이 그날이지만 해가 바뀐 새해 아침에는 지난밤 철학의 어둠을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맞이를 위해 해돋이 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그것은 아마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소원성취를 비는 마음에서 일 겁니다. 우리는 3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소한 일상이 행복 자체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한 지구 살리는 환경보호가 곧 우리 각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묘년에는 거창한 미사여구의 꿈보다는 소소한 선행을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녹여내려 실천해 봅시다. ‘아(아껴 쓰고) 나(나눠 쓰고) 바(바꿔 쓰고) 다(다시 쓰자)’의 정신을 다시 살려봅시다. ‘나 하나쯤이야.’, ‘이번에만’, 이라는 생각을 지우고, ‘나 하나라도’, ‘지금부터 당장’이라는 정신으로 실천해야 마음정정 지구청정에 가닿을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런 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행이 아닐까요!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믿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의 행을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지당한 인연과보(因因果報)의 법칙은 첨단과학이 만들어낸 어떤 정밀기계 못지않게 정확합니다. 토끼가 상징하는 만물의 성장과 번창을 이루려면, 만물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때(因) 비로소 번창(果)으로 이어집니다.

바닷가 백사장의 수많은 모래알들도 저마다의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인간사회도 다양각색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하나가 제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불국토도 사바세계요, 부처의 눈으로 보면 사바세계도 불국토다.’라고 하셨듯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주고 단점을 배려해 주는 동체대비(同體大悲)행을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진정한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토끼는 자기 방귀 소리에도 놀란답니다. 큰 귀로 매사에 귀를 기울인다는 증거겠지요. 우리도 올 한해 자신이 말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 보면 어떨까요?

불자 여러분. 불자님들의 작은 선행 실천의 공덕이 쌓여 각 가정과 이웃, 우리 사회 모두가 행복이 넘치는 세상이 되길 법신비로자나부처님 전에 합장 발원합니다. 옴마니 반메흠



부산·경남교구 교구장/사감원장 범일 정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최고의 스포츠 명언이 나왔죠. 바로 대한민국 국가 축구 대표선수들이 16강 경기를 마치고 태극기에 손 글씨로 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이 메시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LoL월드챔피언십(월드컵)에서 로그와의 대결에서 패한 데프트 선수 인터뷰 영상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쓰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새해 아침이 되면 포부도 크고 계획도 많이 세워봅시다만 뜻 한대로 잘 되지 않죠. 작심삼일이 되곤 합니다. 계묘년에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 구절을 생각하며 뜻 한 바원(願)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중생(衆生)을 어여빠 여기는 부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 비, 희, 사. 이 네 가지의 무량한 마음(無量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체중생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려는 마음가짐이자(慈)무량심이라 하고, 일체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어 깨달음을 주려는 마음가짐이 비(悲)무량심입니다. 또한 희(喜)무량심은 일체중생이 즐거움을 얻으며 행복하고 기뻐하려는 마음을 한량없이 일으키는 마음이며 끝으로 네 번째인 사

(捨)무량심은 일체중생이 격는 고통의 원인인 갈애(渴愛)와 집착을 버림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무량심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을 사무량행(四無量行)이라 합니다. 계묘년 한 해 동안 부처님의 무량한 마음인 자, 비, 희, 사.를 실천하는 진언행자가 되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새해 정진 목표를 사무량행으로 세워봅시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력 불자로서, 중생을 어여빠 여기시는 부처님 마음인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가운데 복 많이 지으시고 가피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합니다.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범상 정사

불꽃같은 교세 회복의 원년으로

과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듯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희망만이 충만한 계묘년 밝은 새해 아침도 어김없이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대구·경북 교구장으로 한해를 뒤돌아볼 때 아쉽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느 때 보다 스승님들이 깨달

음을 위한 노력과 수행에 힘썼고, 교화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대구·경북 교구는 포항지역의 종단 자체 노인요양복지시설 불사의 대장정을 시작으로 교세확대를 위한 씨앗을 뿌린 한해였다고 봅니다.

계묘년 새해 대구·경북 교구는 창

종 당시의 불꽃같은 교세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아 스승님들과 교도분들이 화합하여 더욱 더 융맹정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계묘년 새해에는 늘 건강하시고 복되길 바라며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길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부산시 동래구 시설로 19-39(명륜동) Tel:051-555-4456

해방된 조국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벽찬 사명의 시작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15화>

1907.01.29 경남 밀양 출생
1972.12.24 불교총지중 창중
종령 및 서울선교부 주교 재임
1980.09.08 입적(세순 74세)

조국의 광복이 왔다. 갑작스런 해방을 맞아, 한편에선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편에선 혼란의 움직임이 있었다. 각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해방을 자축하는 인과들이 물려나와 행렬을 이루었다.

군민대회나 민민대회 등을 통해 경찰서와 행정기관을 접수하는 곳도 있었다. 악질 친일파에 대한 비난도 거세졌다. 좌와 우의 격돌이 이어지고, 더해서 친일파에 대한 단죄 요구까지 그동안 억눌렸던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대성사의 고향 밀양도 혼란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마찬가지였다. 대성사는 직직사사 위원으로 군정에서 근무하여 업무가 일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방 정국에도 공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 구호 업무는 오히려 일거리가 늘었다.

밀양에도 인민위원회가 생겼고, 1946년 10월 대구에서 미군정의 쌀 배급 정책에 항의하는 소요사태가 일어났다. 생필품 부족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억눌린 민심이 폭발한 것이다.

대구 사태는 인근 영천으로 이어졌고, 밀양의 민심도 고요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합법적인 활동을 벌이던 공산당이 불법화되어 일부는 월북하고 또 일부는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의 전신인 야산대(野山隊)가 되어 경찰지서와 우익청년단 사무실 등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제의 침략과 만주의 독립전쟁, 중일전



1946년 해방후첫졸업기념 (6.20)

쟁과 태평양전쟁을 모두 겪은 대성사는 민심과 현실의 고난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된다. 세상은 고해이며 닳든 욕망은 고통을 더 크게 할 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또렷하게 지켜본 것이다. 이때부터 불교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더 깊어졌다. 세상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과 수행이라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미군에 의해 치안과 행정 업무가 집행되고 있었는데, 대성사는 미군정으로부터 밀양공립농잠중학교의 행정관에 임명돼 학교 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과거 공직을 시작한 것도 교육위원회의 일이었고, 혼란의 시기에 인재 양성은 새로운 조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일을 맡게 된다.

밀양공립농잠중학교는 1924년 3년제의 밀양공립농잠중학교로 개교하여 해방 직후에는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아우르는 6년제로 변경됐고, 이후 70년대에는 전문대학으로 바뀌었다가 현재 부산대학교에 통합

돼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로 변경되었다. 밀양, 진주 등지는 양잠산업이 발달했는데, 밀양공립농잠중학교가 영남 일대 섬유 산업의 인재를 키워내는 모태 역할을 한 것이다.

해방된 조국의 산업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벽찬 사명감과 기대에 꼭 맞는 인물로 대성사가 선발된 것이다. 밀양공립농잠중학교는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기술을 배우러 당시 밀양뿐 아니라 김해와 진주 등지에서도 진학하는 명문 학교였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에 따라 학생과 학교 전체는 좌익에 경도돼 있었다. 학생과 교사들까지도 이념과 사상을 드러내며 분위기를 이끌어 갔다.

이런 격동 속에서도 대성사는 중심을 잃지 않았다. 그 어떤 극단적인 길도 여의어 중도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펼치신 중도와 정견, 치우치지 않는 바른 사유와 인욕의 가르침이 현실 속에서 더 분명해졌다.

이 시절의 대성사는 누구의 편을 들거나 이익을 좇거나 하지 않고 불편부당한 자세

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늘 하던 대로 정당한 시간에 흐트러지지 않는 몸가짐으로 등교해서 해야 할 일을 처리했다. 덕분에 좌와 우, 학교 당국과 학생들 어느 편으로부터도 비난과 항의가 없이 학교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했다. 선택을 강요하고 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모두를 적으로 돌리던 시절에 교육 행정관으로서 자신의 할 일을 치우침 없이 처리했다. 위낙 원칙을 지키고 사사로운 정에 따라 행하지 않았기에 약간의 불만은 있었어도 원한을 사거나 크게 반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은 이념 투쟁과 정치적 이해의 대립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대성사는 오히려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주말이면 가족을 돌보거나 표충사에 들러 불교 수행관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충사는 임진왜란 때 자신을 던져 고해의 민중을 구하고자 했던 사명당 유정 대사를 기리는 사당이 있는 곳으로, 애국과 수행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배울 수 있는 도량이다.

하지만 개인의 평온한 시간이 주변의 불길한 분위기를 바꿀 수 없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운명은 점점 고난의 불씨가 커졌다. 대성사는 닥쳐올 운명의 불길을 예감한 듯 학교 업무가 끝나면 불교 관련 책과 경전들을 모으고 살펴보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참선과 명상에 깊은 시간을 보냈고, 관세음보살을 비롯한 불보살의 명호를 외는 침명염불(稱念佛佛)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일이 잦았다.

미군정이 뿌리를 내려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자 사회는 또 한 차례 격동을 겪었다.



삽화=종조 일대기 <불공잘해라> 중에서

마음청정 지구청정 Pure Mind. Pure Earth

『기후 환경 위기 극복 불자행동 캠페인』 “생활속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비움
Simple Life

소유지욕 少欲知足 운동
물질만족 욕망은 불행의 원인이니

- 적게 소유하며 검소한 삶을 통해 마음의 풍요를 누리겠습니다.
적게 구입하고, 오래쓰며, 윤리적 소비로 살기
- 자연과 이웃 덕분에 살아남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자연과 이웃의 은혜 알고, 감사와 고마움으로 베풀며 살기
- 본래 내 것은 없음을 알고, 나누고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무소유와 나눔, 자비와 마음으로 동행과 배려의 삶을 살기
- 뛰기 아니라 옆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질적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이웃과 협동하여 공동체로 살기

바꿈
Changing Life

수치작주 隨處作主 운동
나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자

- 자신을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화를 다스리며 수행과 평화영상 생활화하기
- 쓰레기 제로의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우공양, 일회용품 사용금지, 버닐 플라스틱 사용절제, 농어촌 쓰레기줍기
-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전기자동차사용하기
- 채식위주의 식사와 발우공양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장려하며 소식하는 반그릇운동 실천하기

살림
Saving Life

생명방생 生命防喪 운동
우리가 살려면 우린을 살린다

- 동물을 보호하고 살리며,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현대적 방생실천, 살처분 반대, 동물권옹호, 미래세대권리 옹호하기
-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풍요로운 자연을 만들겠습니다.
나이만큼 나무심기, 산림제도 부활, 사할숲가꾸기
- 농업을 지키고 자립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지원지원, 텃밭가꾸기, 귀농귀촌지원, 농촌공동체만들기
- 개발보다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금지, 자연서식지 습지 보호, 생태피괴기법 투지철폐

미래
For the Future

지입자득 自來自得 운동
미래세대에게 화해 물려주지 않기

- 환경과 생태문제를 배우고 이웃과 더불어 실천합니다.
종단, 교구별 환경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실시, 조직만들고 실천하기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사할과 불교사할 태양광 풍력등 재생가능에너지이용, 넷제로(Net-Zero)실천
- 지역적으로 실천하고 지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역단체와 협력하고 지역순환사회만들기, 전지구적인 문제해결에 참여
- 가난한 이웃과 난민,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난민지원, 공정무역, 미래세대를 위한 활동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태고종 불교종지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재대한불교한요종 재대한불교요원선교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삼존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용화종 한국불교미륵종 사)대승불교본원종 사)대한불교한요종 한국불교여래종 보국불교염불종 사)대한불교조동종
사)대한불교광양종 재한국불교본원종 대한불교정토종 대한불교진언종 대한불교화엄종 대한불교법연종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 한국대승불교불이종

밀교연재

법장원 김재동 연구원

불(佛)과 행자가 일여(一如)가 된 상태를 얻어나 구체적 형태로 나타내긴 힘들다. 밀교에서는 상징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정신의학자 융은 상징을 진빌트(Sinnbild) 즉, sinn(의미·의식, 합리적)+bild(그림, 像·무의식, 비합리적))로 분석한다. 심적 사상(事象)의 고유한 에네기(Energie) 변환기라고 하며, 만다라를 ‘상징 중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밀교의 상징도 단지 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수행으로도 이용된다.

그럼 밀교에서는 일여의 상태를 어떻게 나타낼까? 예를 들어 아(我)자관 처럼 일체의 부정을 통해 말하거나, 혹은 청순무구하게 영원한 생명을 샘솟는 마음을 보주형(寶珠形)으로 나타낸다. 또는 무한한 영보(靈寶)를 가득 담은 보

병(寶瓶)으로 나타내거나 단순한 도형을 통해 표현한다. 밀교에서 특히 태장, 금강 만다라에서 이를 도상적으로 나타낸 것이 여의주와 보병이다.

<삼매야 만다라>에서는 태장의 4불, 즉 보당(寶幢), 개부화(開敷華), 무량수(미타), 천고뇌음(天鼓雷音)과 금강계 만다라의 <오부심관>의 사불 즉 아촉, 보생, 무량수, 불공성취의 표지인(標幟印)(상징도형)은 여의주로 표시되어 있다.

『현도』 금강계만다라에서는 중앙오해탈륜(中央五解脫輪)의 각 네 모서리에 여의주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태장, 금강의 만다라를 진실로 관상함으로써 여래의 지혜에



태장계 만다라

의해 일체의 마음을 더럽히는 번뇌가 소진되어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드러내 우주의 대생명을 체득하고, 여기에 모든 장애를 멀리



금강계 만다라

떠난 자유로운 생명체가 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일 형상으로 나타낸다면 뻗어나가는 마음, 보옥(寶玉)에 비할 만한 마음으로 여의

태장, 금강의 만다라에는 보주와 함께 보병(寶瓶)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장도상>의 만다라에서는 가장 먼저 유가행자와 보병의 그림이 나타나고 가장 마지막에도 유가행자와 보병이 나타나 행자의 마음은 보병에 나타난 풍요로운 마음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삼매야 만다라>에서는 문위(門衛) 안에 보병이 나타나 그 옆에 유가행자가 그려져 있는 것도 행자의 완성된 인격화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현도』 태장만다라는 중대팔업원의 네 모퉁이에 보병이 있고, 금강계만다라에는 일인회(一印會)에 보병을 볼 수 있다.

다음호에 이어



새해에는 좌우명이 있는 삶을 염원한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새로운 각오와 다짐 및 희망으로 새해 아침을 연다.

새해 벽두에는 누구나 지난해에 실천하지 못했던 일이나 미흡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통해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 보겠다는 굳은 결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꼼꼼히 되짚어 보거나 앞날을 설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에 대한 또 다른 인생 설계이기 때문이다.

새해에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

지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삶의 자세를 확연히 변화시켜 삶 자체도 윤택하게 한다. 이러한 자신과의 진실된 약속이야말로 자신의 능력 계발은 물론이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년을 건강 원년으로 정했다면 금연(禁煙)·금주(禁酒) 등의 절제된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행복의 나무를 세상에 심겠다는 다짐을 했다면 자신의 가정은 물론 주변과 이웃사랑에도 더욱 충실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올해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러

한 좌우명(座右銘)을 하나쯤 정해서 실행에 옮겨보는 한 해가 되기를 정중하게 제안해 본다. 좌우명이란, 국어사전에 ‘인간 생활에서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반성의 자료로 삼는 사리(事理)에 맞아 교훈이 될 만한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도 인간 생활의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인간 존재의 진실한 의미를 파악하고, 인간 행위의 산 이정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듯이 자신의 좌우명을 구안해서 평소 일상생활 속에 삶의 나침반(羅針盤)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

의 좌우명은 바로 각자의 삶의 이정표이면서 지침이요, 생활의 원동력이 되어 줄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나 국가가 어려울 때 구국(救國)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낸 훌륭한 선각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강하고 도전적인 좌우명으로 각오를 다졌다.

충무공 이순신은 ‘죽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살고, 살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죽는다(死即必生, 生即必死)’라는 말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전승(戰勝)의 공을 세웠는가 하면,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좌우명으로 세계를 정복하지도 않았던가?

삶의 어려운 고비나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최선을 다

해 힘써 나아가면 반드시 길은 뚫리거나 열리게 되는 법이다. 베토벤이 악성(樂聖)의 칭호를 받게 된 교향곡인 ‘운명’은 청각장애로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시기에 작곡한 것으로 유명하다. 음악가에 있어 청각장애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베토벤은 이러한 신체적 불편함과 정서적 악조건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피아노 건반 줄에 실을 묶어 나무 막대기에 연결한 뒤, 그 막대기를 입에 물고 거기서 전해오는 느낌을 감지하면서 8년간에 걸쳐 대작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실로 그 의지가 바로 좌우명의 발로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 교향곡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장엄함을 느끼게 되는가! 그의 악보 공책 표지에는 ‘괴로움을 이겨내는 기쁨으로...’라

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우리 모두 부디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무엇인가를 꼭 이뤄야지’ 하는 개인의 각오 하나쯤은 꼭 만들어서 실천에 옮기는 깨달음의 구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2023년 검은 토끼띠인 계묘년 정월 초하루의 태양은 유난히 의미가 있는 새해 아침이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모두 모든 일에 투철한 신념과 열정적 자기 철학을 가지고, 무슨 일이나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해보자.

매사에 자중자애(自重自愛)하면서 계획적 생활과 책임 있는 행동과 진취적 정신으로 2023년은 축복과 행복, 부처님의 자비가 온 누리에 펼쳐지는 삶이 되도록 힘차게 살아가자.

시인, 전 동해중 교장 탁상달

강남구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

서초구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원장

강남구
초록어린이집
유지영 원장

성남시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원장

종로구
아동회관어린이집
진금선 원장

강남구
힐스어린이집
곽방은 원장

서초구
포레스타7어린이집
최유정 원장

강서구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원장

강남구
미미위 세곡키움센터
이지희 센터장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

성남구
양지동 제1복지회관
서영주 관장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공 잘해라’ 독후감 우수작 시상식 개최

총지사 황보정미, 수인사 공재호, 일반 나종훈 수상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독후감 공모전 우수작 3편에 대한 시상식이 총기 51년 창교절인 12월 24일에 진행됐다. 사진 (좌)총지사 (우)수인사

불교총지종 창종 50주년을 기념하고 종조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해 개최됐던 독후감 공모전 우수작 3편에 대한 시상식이 총기 51년 창교절인 12월 24일에 진행됐다. 창교절 법회는 전국 사원에서 봉행됨에 따라 총지사와 수인사에서 각각 이루어졌다. 총지신문 273호

에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종령상에 총지사 황보정미 교도, 통리원장 상에 수인사 공재호 교도와 일반부 나종훈 씨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으며, 각각 상장과 상금이 전달됐다. 총지사 창교절 법회에 참석한 종령 법공 예하는 시상식에서 “소중한 마음을 글로 담은 종조 선양과 교화 발전에 이바지 한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면서 “종조님 말씀처럼 불공 잘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이어갔다. 황보정미 씨는 “뜻하지 않은 수상에 너무 기쁘다.”며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총지종 안에서 위안을 얻고 이 안에 머무르는 모두가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불공 잘해라> 독후감 공모전은 불교총지종 통리원이 주최하고 도서출판 운주사가 후원하여, 지난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불공 잘해라>는 한국 정통 밀교의 맥을 잇고, 현대 한국 밀교를 중흥 시킨 원정 대성사의 삶과 수행, 가르침을 담은 최초의 책이다.

서울경인교구 임인년 송년회 개최



서울경인교구(교구장:록경정사)가 지난달 7일 본산 반야실에서 임인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각 사원 주교와 스승, 교도들 30여 명이 동참한 이날 송년회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서로 나누며 덕담이 오고가는 자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경인교구 신정희 김은숙 전 지회장은 교화발전전에 애써온 벽룡사 양재범, 이인성 각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에 총지장학금 수여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신성민)가 주관하는 2022년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에서 불교 언론인 자녀들에게 종단이 후원하는 총지장학금이 전달됐다. 지난달 12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총지장학금은 밀교신문 김보배 기자의 자녀에게 돌아갔다. 총지장학금은 일선에서 불법홍포를 위해 애쓰는 기자의 자녀들에게 종단이 2019년도부터 한국불교기자협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종단협 제3회 정기이사회 개최

신임회장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지난 달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제 3차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종단협 부회장 통리원장 우인 정사와 총무부장 록경 정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단협 및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진우 스님을 선임했다. 종단협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왔던 여러 행사 및 특별사업계획을 재정비하고 21억 원 규모

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켰다. 특히 세입세출안 확정과 함께 지난 2차 이사회에서 이월된 긴급구호기금 확충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책정했다. 이에 따라 1월 열리는 신년하례법회를 시작으로 불교계와 정계가 함께하는 주요 행사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대법회’는 올해 4월, 제 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는 10월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 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올해 6월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



하고 제 15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11월에 일본에서 열기로 하면서 국가 간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정

기총회 및 이사회는 오는 2월 28일 개최된다. 김상미 기자



종단협 동지 팔죽 나눔 행사

계묘년 새해 행복과 건강 기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가 지난 달 15일 서울 북인사동에서 동지를 맞이하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동지 팔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범명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주요 종단 스님들이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자비의 온정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1천명 분의 팔죽을 대

나무로 제작된 친환경 용기에 손수 담아 시민들에게 전달했으며, 새해 달력 2,500부, 환경 위기의식을 제고하는 씨앗 화분 880개, 단주와 양말이 든 복주머니 5,000개 또한 선물했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우리나라 전통 미풍양속인 동지를 맞이하여 불교의 대표적 보시음식인 팔죽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 모두 안 좋은 일들은 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불교총지종 종무원 법정 의무 교육 실시

법정의무교육이 서울 본산과 부산 정각사 등 전 종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본산 반야실에서 실시됐다. 법정의무교육은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강좌는 노무법인 에이치 문규나 노무사가 초빙되어 성차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등에 관해 교육했다.

제3기 감수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오는 2월 대전서 전국 교도 통신원 교육

제3기 감수위원회 2차 정기회의가 지난달 13일 부산 법성사에서 열렸다. 교정부장 보현 전수를 비롯해 감수위원 전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9월에 열렸던 1차 회의록 검토를 시작으로 종단 간행물인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는 모두 기존 발송목록에 군법당과 교정교화교도소 목록을 늘리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교도소 위주의 배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많은 교도들과 행인들이 종단 간행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각 사원 입구에 거치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전국 사원의 교도 통신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운영방안에 대해 서도 세부일정을 논의했다. 오는 2월 11일에 대전지역



에서 사진촬영에 대한 기초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진에 관심 있는 교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여 통신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11면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새	해	불	공		일	일	시	호	일
우			동		망			시	
잠	수		소	나	타			탐	육
	드		유		진	보		탐	
	라	임		화		시	차		기
데			불	공			박	람	회
카	타	르			미				비
르		네	이	마	르		이	완	용
트		상		사		수	성		
	가	스	라	이	팅		계	묘	년

박희승 교수의
불교로
여는 삶<13>

부처님과 월드컵으로 확인한 언행일치 지도자의 중요성

세계인이 함께 하는 최고 축제는 월드컵이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은 처음으로 뜨거운 사막의 중동에서 열렸다.

이번 월드컵은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의 선전으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 높았다. 가뜰이나 물가고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어두운 나날이었는데, 한국 선수들의 끈질긴 선전과 세계 축구 선수들의 열정으로 적지 않은 감동과 위로가 되었다.

축구는 단체 경기이다. 특출한 개인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축구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11명 이외에도 감독과 후보 선수들이 함께 한다. 그래서 감독과 같은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성이 강하고 건장한 선수들을 잘 융합시켜 팀플레이를 하게 이끌어야 한다.

축구 감독으로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4강 신화를 쓴 허정민 감독의 리더십이 빛난다. 그는 한국 축구의 학맥과 선후배간의 위계를 얹고 실력 위주로 선수 선발을 하고 선후배가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도록 이끌어 월드컵 4강의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는 우승 후보였던 포르투갈에 역전승을 하면서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다. 막판 역전극의 주역은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다. 손흥민은 후반 연장 시간에 60미터를 드리블하여 수비수 사이로 침착하고도 절묘한 패스를 하여 황희찬이 골을 넣게 도왔다.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은 너무 기쁜 나머지 골 세레모니를 하면서 선수복 상의를 벗었는데, 등에 새겨진 인드라망의 심볼 그림이 화제가 되었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한국 축구 선수로는 드물게 세계 정상급 선수인데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아들의 성공을 도왔다. 손 씨는 아들이 축구에 흥미를 가지고 가르쳐 달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축구에 관심을 가지자, 공 잘 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며 인성 교육을 우선하면서 기본기부터 가르쳤다.

이번 한국 축구의 16강 진출을 이끈 포르투갈 출신 벤투 감독의 리더십도 화제다. 벤투는 한국 축구 대표들을 지휘하기 위해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를 왔다. 보통 외국인 감독들은 혼자 한국에 와서 호텔에서 보내기 생활을 하는데 그는 달랐다. 진심으로 한국을 좋아하고 축구 선수들을 존중했다. 그는 대표팀 소집 기간에 선수들이 집안 일이 있으면 다녀오게 했다. 축구 선수도 인간으로 가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또 선수가 다치거나 부상을 입으면 회복을 우선하였고, 출전도 본인의 뜻을 물었다고 한다. 감독이 선수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니 선수들도 감독을 존경하고 따랐다.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16강 진출로 이어졌다. 슈퍼스타들이 많아 우승 후보로 꼽히던 벨기에나 포르투갈 선수들이 내분으로 중도 탈락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포르투갈전 후반 추가 시간의 역전골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 포기했다면 그런 기쁨도 감동도 없었을 것이다. 불교의 깨달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기도나 수행도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해야 생사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해탈한다.

불자라면 물러서지 않는 정진과 더불어 도반이나 공동체에서의 화합도 중요하다. 불교 지도자라면 공동체(단체)에서 불자 개개인의 근기와 입장을 배려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 누구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몸소 행으로 증명하셨다.

부처님은 깨친 뒤 열반에 드실 때까지 평생 걸식으로 하루 한 끼 드셨다. 부처님은 당신이 말한 것을 평생 행으로 일치시켰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언행일치의 리더십을 보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새해에는 국가 지도자를 비롯하여 모든 리더들이 국민을 비롯하여 구성원들을 존중하며 언행일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주시기를 바란다. 월드컵 축구선수들과 감독의 리더십을 교훈삼아 서로 존중하면서 언행일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발원한다.

박희승 불교인재원 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장애인과 한 부모 가정 위해 200만원 희사

정각사 자비회, 12월 19일 동래구청에 성금 전달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희사와 자비나눔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부산 정각사 자비회(회장: 백일숙)가 2022년 연말에도 이웃돕기의 손길로 훈훈한 한해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자비회 이영순 총무와 서봉희 총무는 일진 정사와 함께 동래구청을 방문해 장애인과

한 부모 가정 앞으로 이웃사랑성금 200만원을 희사했다. 이날 자리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이 참여해 성금을 전달 받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장 구청장은 “늘 잊지 않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원해주신 불교 총지종 정각사 자비회에 감사드리며, 뜻을 대신하여 어려운 가정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인사했다. 자비회 이영순 총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백일숙 회장이 동참하지는 못하셨지만, 회장님을 비롯해 모든 자비회 회원의 마음을 잘 받들어 기쁜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새해에도 자비회는 자비회라는 이름에 맞게 무주상보시에 정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자비회는 지난해 여름에도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동래구 보건소 대응요원들을 위한 생수, 음료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동래구청을 통해 전달한 바 있으며, 종단의 대표 교도모임 중 하나로 모자가정 돌봄센터, 연산동 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 어디든 40여 년간 꾸준히 자비희사를 해오고 있다.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12월25일
계유생 김도희 영식 49재
총지사 성준용 교도 시모

결혼을
축하합니다

록경 정사, 범수연 전수 딸
황보 정미 양
1월 14일(토) 오후 2시
서울 더에스비웨딩컨벤션



부산서예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수상 정각사 이청자 교도, 3년 전 취미 생활로 시작

부산 정각사 이청자(80세) 교도가 제20회 부산서예비엔날레 국제 공모전 일반부 전에서 부문에서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서예비엔날레는 국내외 서화 작가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 서화예술의 발전 및 유망한 신진 서화 작가의 발굴을 위해 지난 2005년 시작됐다. 이 교도는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를 예서 필법으로 완성했으며, 지난해 10월 22일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한편 공모전 입상 작품들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산시민공원 시민사랑채에 전시되었다. 이 교도는 “3년 전부터 취미생활

로 서예를 시작했고, 불보살님 전에 늘 정진하는 마음으로 글씨를 써왔다.”며 “모두 축하해주셔서 감사하고 기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교도는 동해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현재 관음학사 이사인 강경중 정각사 단원회 회장과 부부로서 도반으로서 오랜 세월 진언수행의 길을 함께 걸어오고 있다. <작품설명>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을 밟고 들판을 걸어가랴 경우는, 모름지기 함부로 걸지를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마침내 뒤 사람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다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경인신정회 지회장 박정희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계묘년
한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산경남신정회 지회장 류길자
각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부처님의
가피 공덕이
늘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대구경북신정회 지회장 유복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청전라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각 사원 신정회 회장 일동

종립 동해중학교,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

(사)바보클럽 후원, 도움 필요한 이웃에 500포기 전달



‘함께 나누는 기쁨,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기치로 지난해 12월 18일 종립 동해중학교(학교장: 송인근)에서 제2회 자녀와 함께하는 사랑

의 김장 나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동해중학교와 (사)바보클럽인재양성콘텐츠랩(이사장: 강병중)과 부산 북부산 JCI 가 공동 주관으로 동해중 송인근 교장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30명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대학생 및 고등학생, 부산북부산 JCI 회원 등 약 100명의 봉사자들이 동참해 약 500여 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행사의 모든 예산은 (사)바보클럽봉사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약 500만 원 가량의 기금으로 제공됐다.

이날 김장은 구서지역아동센터, 손나래이미용봉사단, 금정구자원봉사센터, 송운초등학교돌봄교실 등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모두 전달됐다.

(사)바보클럽 탁상달 운영위원장(전 동해중학교 교장)은 “봉사에 참여해준 동해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희망 운동 캠페인 참여 ‘2023 희망 운동,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종단 소속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 앞으로 500만원을 회사했다.



수인사, 동지 팔죽 이웃나눔 보시행 동지를 맞아 포항 수인사(주교: 법삼 정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동지팔죽 나눔 행사’를 열고 팔죽 도시락 200개를 준비해 이동이 불편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전달했다.

서울경인교구신정회 새 지회장

총지사 박정희 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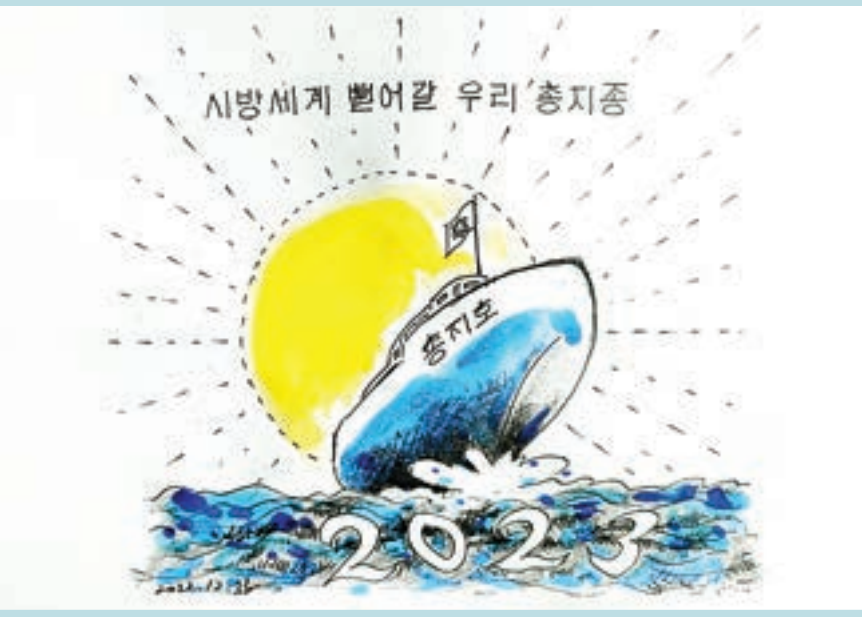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에 총지사 박정희 교도가 새로이 선임됐다.

전 김은숙 신정회 지회장이 사임의 뜻을 밝힌 데에 따라 지회 간부들은 전 지회장의 마음을 존중해 지난해 12월 7일 송년회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 지회장은 1976년 불교총지중에 입교하여, 총지사를 원찰로 총지사 신정회 회장과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 부회장, 마니합창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교화와 제도에 앞장서 오고 있다.

총지 스케치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ㄱ			ㄴ		②ㄷ			ㄹ	
③	ㅁ		④					⑤	
					⑥	ㅂ			
	⑦			ㅅ		⑧	ㅇ		ㅈ
ㅊ			⑨				⑩		
⑪		ㅅ			ㅊ				
		⑫		ㅊ			⑬ㅅ		
					⑮				
	⑭					⑯			

가로 열쇠

- 1년 중 총지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불공, 정월 첫째 월요일~일요일에 마침
- 벽암록에 나오는 운문 선사사의 고사로 날마다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뜻
- 물속에 잠김
- 음악의 장르, 베토벤 피아노 000 8번
- 불교에서 3독 중의 하나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
-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 반의어 보수
- 녹색 열매의 신맛이 나는 감귤류의 과일
- 태양이 뜨고 지는 정도의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시간상의 차이
- 불교에서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 산업의 진흥을 위해 각종 물품을 전시, 진열, 판매하는 전람회
- 아시아 아라비아반도 동부에 있는 왕국, 2022년 월드컵 개최지
- 현재 브라질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세계 스포츠 스타 연봉 TOP 4
- 을사조약, 한일병합조약 등 민족을 배반한 대표적인 친일파 인물
- 심리적 조작으로 타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
-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세로 열쇠

- 주로 모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
- 둘 이상의 개인, 단체, 국가가 동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일
- 한 번 그물을 쳐서 고기를 다 잡는다는 뜻
-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피는 모양
- 인도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 불교의 육바라밀 가운데 제 1의 덕목으로 타인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
- 단청문양, 벽화 등 목구조조물에 채색 및 시공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 여행할 때 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것
- 무엇을 얻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합리적 선택에 대한 가치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대철학의 아버지
-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혁신 운동으로 근대화의 사상적 토대
- 용(龍)을 뜻하는 순우리말
- 아프리카 유목민들이 거주했던 케냐의 남부 지방, 교정용 워킹화의 이름
- 조선의 제 1대 왕

불교총지중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중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 원 명	우편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통 리 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 련 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 성 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 인 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 천 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 룡 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산림동)	(02)889-0211
시 법 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 지 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 심 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 인 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 지 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 보 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 황 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 정 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합곡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홍 국 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복길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 원 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 천 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 화 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 광 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 음 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1-0526
선 립 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 계 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 인 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 천 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 석 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 음 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 향 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 화 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 행 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 성 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 밀 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 화 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 보 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윤 천 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 상 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 석 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 각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 음 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 해 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계묘년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종 령 법공 대종사

통 리 원 장 우인 정사 종 의 회 의 장 법상인 전수 사 감 원 장 법일 정사

본산	서울경인교구	부산경남교구	대구경북교구	충청전라교구
총무부장 록경	관성사 주교 우인	관음사 주교 정인화	건화사 주교 도관	만보사 주교 유가해
재무부장 승원	밀인사 주교 덕광	단향사 주교 지홍	개천사 주교 인덕심	법황사 주교 인선
교정부장 보현	법천사 주교 화령	덕화사 주교 법상인	국광사 주교 해안정	중원사 주교 정정심
총무원 일동	벽룡사 주교 승원	밀행사 주교 행원심	단음사 주교 남혜	혜정사 주교 진일심
	시법사 주교 해광	법성사 주교 법선	선림사 주교 수현	흥국사 주교 인선
중앙종의회	실지사 주교 서강	삼밀사 주교 묘홍	수계사 주교 자심관	
사감원	지인사 주교 법우	성화사 주교 금강륜	수인사 주교 법상	
원의원	총지사 주교 록경	실보사 주교 서령	승천사 주교 지선행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운천사 주교 정원심	제석사 주교 원만원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일상사 주교 수행월		
		자석사 주교 도우		
법장원		정각사 주교 법일		
중앙교육원		화음사 주교 묘심해		
밀교연구소		동해사 주교 법선		
학교법인관음학사 동해중학교				